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출혈의 임상적 특징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엄은아 · 정연순 · 문 원 · 한병호 · 임 학

Clinical Features of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in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Eun-A Eum, Yeon Soon Jung, Won Moon, Byoung-Ho Han, Hark Rim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목 적 :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출혈은 흔한 합병증이며, 중요 입원원인이자 의료비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험인자들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일차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도혈이나 혈변 등으로 고신의대 부속 복음병원을 방문하여 상부위장관 출혈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검사 전후 6개월 이상 기간동안 혈청 크레아티닌이 2 mg/dL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위장관 출혈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는 32명이었으며 환자의 평균나이는 58.2±12.1세였다. 이 중 투석 전단계의 환자는 13명 (40.6%), 혈액투석 환자는 18명 (56.2%), 복막투석 환자는 1명 (3.2%)였다. 내시경적 시술을 시행한 환자는 19명 (59.4%)이었으며 내과적 치료로 출혈이 멎은 환자는 13명 (40.6%)였다. 원인 위병변은 위궤양이 30명 (93.7%), 혈관성 병변이 2명 (6.3%)이었다. 재출혈은 3명에서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이 술 후 사망하였다. 혈액투석 환자들의 평균 헤파린 사용량은 2906±795 U이었으며, 평균투석기간 37.8±32.7개월, 투석적절도 (KT/V) 1.46±0.51, 보정단백이화율 (nPCR)은 0.96±0.23이었다.

결 론 : 만성신부전 환자의 상부위장관 출혈의 원인으로 위궤양이 가장 많았다. 재출혈의 경우는 위의 후벽과 위문부의 궤양이었다. 혈액투석환자의 KT/V는 적절도 지침목표내에 있었으며 nPCR로 나타내는 영양상태는 적절한 경향을 보였다. 향후 위출혈에 대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위궤양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의 위장관 출혈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